

주임신부: 김대하 (요한 사도)
본당회장: 권병학 (요한 사도)
TEL: (905) 545-3004
FAX: (905) 545-7895

연중 시기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태 5,3)

미사 시간	
미 사	주일 11 시 (본당)
	주일 17 시 30 분 (공소)
평 일	매주(화) 20 시
	매주(수) 11 시
	매월 첫(목) 19 시
성모 신심 미사 십자가의 길	매월 첫(토) 11 시
성시간	매월 첫(목) 19 시 미사 중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 년에 1 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 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 주 미사 후
셋별 Pr.	매주 주일 9 시 30 분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 시 30 분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수요일 9 시 30 분
사도들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 시 30 분
사랑하울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 시 30 분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 주(토) 10 시
울뜨레야	매월 1 주(목) 성시간 후

ONE
HEART.
ONE
SOUL

A Campaign for the Diocese of Hamilton

총 약정 목표액: \$110,000

실질 약정액: \$86,409, 적립금액(\$76,263)

본당 소식

◎ 전례 안내
▶2/1(일) 연중 제 4 주일 미사 (본당 11:00, 공소 17:30)
▶2/3(화) 연중 제 4 주간 화요일 미사 (20:00)
▶2/4(수) 연중 제 4 주간 수요일 미사 (11:00)
▶2/5(목) 성녀 아가타 동정 순교자 기념 미사, 성시간 (19:00)
▶2/7(토) 성모 신심 미사 (11:00)
▶2/8(일) 연중 제 5 주일 미사 (본당 11:00, 공소 17:30)

◎ 설 합동 위령 미사
2/15(일) 주일미사를 설 합동 위령 미사로 봉헌합니다.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한 미사 예물을 받습니다.
마감: 2/8(일), 전례분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지가지 회수
재의 수요일 미사(2/18(수) 19:30)에 사용될 성지가지를 회수합니다.
복도에 있는 바구니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2/15(일)

◎ 나의 수호 성인 이야기
오늘 수호성인 이야기는 <성 베네딕도>입니다.
다음주는 <성 루카>입니다.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19:30)
2/20 독서해설단 (해설: 신부님) 2/27 사목회
3/ 6 꾸리아/바뇌 기도회 3/13 울뜨레야
3/20 주일학교 자모회/성가대 3/27 복사단
4/ 3 구역장 (해설: 신부님)
* 각 단체는 해설, 십자가 복사 1명, 초복사 2명과
십자가의 길 내용을 정해서 전례분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소식

◎ 시설분과
시설분과에서 함께 봉사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문의: 시설분과장 정종만 루카 289-219-2204

◎ 은빛모임
오늘 은빛모임은 ‘설날 맞이 윷놀이’입니다.

◎ 구역장 월례회의
오늘 미사 후 대철실에서 구역장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 울뜨레야
2/5(목) 19 시 미사 후 울뜨레야가 있습니다.

◎ 꾸리아
다음 주(2/8) 미사 후 꾸리아가 있습니다.

◎ 꽃동네 1 박 2 일 사순피정
* 강사: 신상현 야고보 수사님(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 일시: 2/21(토) 오전 9 시~2/22(일)오후 3 시
* 접수비: \$250 (선착순 35 명) * 마감: 2/15(일)
* 문의: 이상은 엘리사벳 289-933-0242

◎ 가톨릭성서모임 <창세기/탈출기/마르코/요한반 모집>
4~6 명그룹으로 매주 1 회 화상을 통해 나눔 진행.
* 창세기 반: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
* 탈출기 반: 창세기 공부를 마치신 분
* 마르코반: 창세기와 탈출기 공부를 마치신 분
* 요한반: 창세기, 탈출기와 마르코 공부를 마치신 분
* 접수 기간: 2/15 * 문의: 이상은 엘리사벳

공소 소식

◎ 오늘 미사 후 연도가 있습니다.
고 권임선 마리아(김경래 말따 모친)
◎ 오늘(2/1) 미사 후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사목회장 댁)

친교식사 및 제대꽃

오늘 친교식사는 5 구역에서 ‘육개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2/8: 6 구역 2/15: 7 구역 3/1: 1 구역

구역 모임 소식

이달의 묵상 주제 (마태 4,1-11) ‘유혹’
1 구역: 2/28(토) 친교실 식사준비 후
2 구역: 2/21(토) 친교실 11:00
3 구역: 2/21(토) 친교실 12:00
4 구역: 2/21(토) 황창환 알비노 18:00
5 구역: 2/21(토) 하태성 베드로 18:00
6 구역: 2/ 8(일) 친교실 식사 후
7 구역: 황미옥 레지나

새해를 맞이하며 바치는 기도

○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 예수님,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새해에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맡은 책임을 다하여
가정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또한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께 바치오니
하느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 주소서. ◎ 아멘.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람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64 명)			
주일헌금	\$565	교무금	
감사헌금		기타	\$10

◎ 2 월 축일자 (10 명)
2/ 4 요안나(임성신)
2/ 5 아가다(주소연, 이금자)
2/ 8 요세피나 (박지나)
2/10 스콜라스티카(강영희)
2/16 아카페(오애선)
2/18 요한 프라 안젤리코(정이안)
2/26 이사벨라(이지민, 류혜진), 알렉산데르(이시훈)

▪ 수정사항이 있으면 구역장을 통해서 총무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2/ 1	박규혜 카타리나	이준환 파비아노, 이준규 안드레아 이준서 요한, 이준우 바오로	1 독서: 이은영 힐데가르트 2 독서: 강지원 요안나	김의수 안드레아 박혜영 수산나
2/ 8	임연신 비아	최다혜 플로라, 이소민 그레이스	1 독서: 김성수 베드로 2 독서: 이재순 데레사	이은영 힐데가르트 강지원 요안나
2/ 15	박혜영 수산나	최다인 안나, 유세진 라파엘	1 독서: 김한옥 에릭 2 독서: 채정희 올리비에	김성수 베드로 이재순 데레사

참된 행복이란

강지훈 시몬 신부
하늘공원 성사담당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첫 부분으로, 참된 행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을 향해 제시하시는 행복 중 어떤 부분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과는 동떨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나 피하고자 하는, 또는 인생에서 겪고 싶지 않은 부정적으로 보이는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단순히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살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선언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이는 모두가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 혼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음을 깊이 인정하는 영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마음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부유함의 추구나 다른 이들보다 뒷자리에 서고자 함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 존재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며,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영적 가난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하늘 나라가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말씀 또한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슬픔이란 우리 인간들이 짓게 되는 죄와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한 무관심, 더 나아가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길로 나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무감각한 마음에 대한 슬픔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슬픔이 우리를 마음속에 존재할 때에야 우리는 현실을 바꿀 힘을 가질 수 있고, 회개와 진리의 추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이러한 슬픔을 간직한 이들을 하느님께서 위로하시고 마침내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뒤이어 온유하고 의로움을 추구하며, 자비롭고 평화를 이루며,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역시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의 특징을 온전히 보여줍니다. 이런 가치들을 추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이 이 세상 안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희망과 열정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행복이란 그분께서 걸어가셨던 고통과 희망의 길에 대한 목상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재설정되는 과정 속에 얻게 되는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하느님 나라의 본질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의 참 행복을 찾기 위해 일상 속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노력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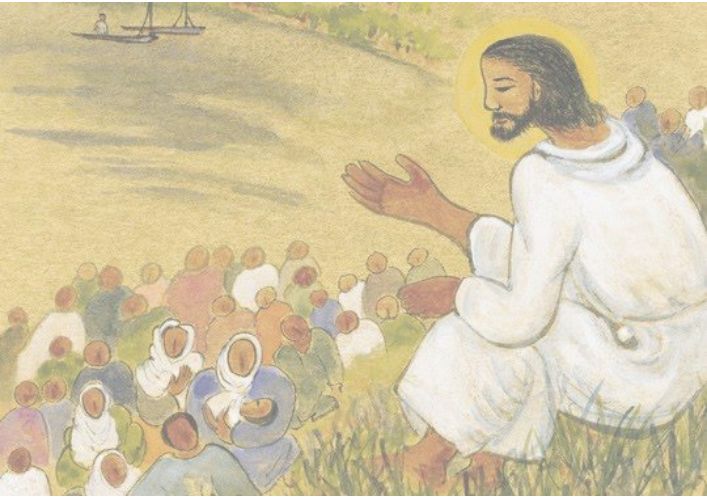
대 철 주 보

선포와 나눔의 해

2026 사목지침

<http://cafe.daum.net/stpeteryu>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연중 제 4 주일 (2026. 2. 1.)

제 1 독서 스바냐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2,3;12-13

화답송 시편 146(145),6 다-7,8-9 10 다-10 11 (마태 5,3)



후렴. 행 복 — 하려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 — 이 — 다.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서 말씀입니다. 1,26-31

복음 환호송 마태 5,12

◎ 알렐루야. ○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알렐루야.

복 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12 다